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하는 명품  
**빅맨평생통장**  
 \*세금 거래 실적의 10%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지원합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위원: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움이 시작된다. 부모 형제 스승 선후배 친구 등 숭한 인연 속에서 '선생(先生)'을 만나게 된다. 그를 통해 지식은 물론 지혜를 습득한다. 특히 몸을 주신 부모와 사뭇을 만들어주신 스승의 은혜는 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조차도 사제간의 도리와 정을 찾기 쉽지 않다. 15일 스승의날, 단 한숨이 카테이션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가르침의 은혜와 보답의 정신을 새겨야 하겠다. 실제 대도시이시고 사생의 자부심인 부처님의 사제관은 그래서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편집자 주)

사제(師弟)의 의(義)는 자 다스려 스승으로 부터 들은 연스러운 가운데 관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깊이 알아 상대를 자기처럼 여겨서 재가 못하 는 일을 상대에게 요구치 말라. 예의를 숭상 하여 질리를 가지고 가르치며, 은화하고 성실 하여 서로 원망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제자와 스승 사이는 양쪽이 다 정되고 성실해야 한다. (아나문사불교집경)

스승은 다섯 가지 일로 제자를 돌보아야 한다. 첫째는 불법에 의지 해 조야(調御)함이고, 둘째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그 잘못한 는 것을 따라 방범을 잘 볼 아들이요, 넷째는 그 선착임 을 보여 줌이요, 다섯째는 자기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아끼지 않음이다. (장아집경)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 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고 둘째 존 경해 봉사함이고 셋째 존중 해 기대함이고 넷째 가르침 을 따라서 여기지 않음이고

전국 불복위 행사	14면
'사이버책방' 등장	12면
사찰 주말농장 증가	11면
파계사 영산율원 개원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보 305-4464  
 우편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조계종 의제 개혁

'의제위' 구성·6월 공청회... 승복으로 법계구별

비구(나), 사미(나)의 승복과 가사가 빠르면 금년내에 차별화된다. 또한 같은 법계내의 승복과 가사는 통일되고 단계별 로 법계에 따라 가사의 형태가 구별된다.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임주)은 지난 9일 중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토하는 의제개혁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유사를 중심으로 의제위원회를 구성했다.

총무원은 "종단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무질서한 승가의 의복을 정비,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왔다"며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를위해 이날 중 무회의 상무 부관수령등 종단 계단위원을 지도위원으로하는 의제위원회(위원장 법사·총무 부장)를 출범시켜 의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제위원회는 1단 계사업으로 △비구(나)와 사미(나)의 승복, 가사구분 △같은 법계내의 승복 및 가사를 통일 하고 2단계로 △법계에 따른 가사 차별화(승가교사, 법계종 과 연계) △교사 신발 내의등 의제관련용품의 표준화 실시등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 1단계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계종 일각에서는 "사미(나)승은 승려예비과정으 로 정식승려가 아닌데도 불구 하고 복장, 가사가 비구(나)와 동일해 승단의 무질서와 혼란 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제개혁의 필요성이 구 존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조계종의 의제는 1962



연등만드는 벽안의 동심 부처님오신날 맞이 외국인 어린이들도 봉 축 연등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5일 연등국제불교교과관에서 외국인 어린이들과 가족이 모여 한일 한일 정성들여 연등을 만들었다.

## 종교유휴공간 보육시설 건립 지원

보건복지부, 5천만원까지 보조...교사 2명 인건비도

어린이집 개설이 손쉽게 됐 다. 보건복지부는 지난6일 종 교시설의 유휴공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지원 한다고 밝히 어린이 보호의 획 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의 지원은 종교법인 이나 종교단체명의로 된 5백 명이상의 신도수를 확보하고 최 소 유휴공간 22평을 확보하고 있는 사찰에서 어린이 집을 개 설할 경우 개보수비 정비비 높 이시설 설치비 교재·교구 구 입비명목으로 정부가 2천5백 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 고 보육교사 2인의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을 골자 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지원 방안은 지난해 5월 영·유아교 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천2백92억원을 배정, 2천1백개의 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종교단체의 보육사

업참여를 유도하고 보육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1인당 월 2만원의 간식비를 보조하고 탁아와 함께 유아 교육을 실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어 정 부의 지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된다. 칠보사유치원의 이성주원장은 "기초시설에는 지원되지 않 았던 시설설치비와 인건비까지 부담해주는 신규보육시설설치 에 대해 교계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년 청담스님이 주도하던 통합 종단에서 정한 의제법에 따르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 다. 의제법에 사미(나)는 만 의를 수여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를 이십오조(법계 1급) 십 오조(법계 3급이상) 구조(법계 5급이상)로 나누고 있다. 조계종은 6월부터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의제개 혁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경 의제법 개정과 함께 본격 실시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동행해주신 분**



◇ 무애스님



◇ 윤운숙씨

△지선 성흥사 주지: 경남 하동동(1구좌) △ 무애 한마음선원 금양지원장: 음성교 무극중 금왕공고 삼척중(4구좌) △윤운숙 한국여성문 제연구회회장: (10구좌) △유옥선: 노원 을지 국교(1구좌) △청이 동국대학인스님: (2구좌) △한종훈: (1구좌) △김윤근: (1구좌) △김일 정: (2구좌) (5월 9일 현재 총206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 모형제작: 석고보다 경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 기술지원: 방종사 (대표 김철호)
-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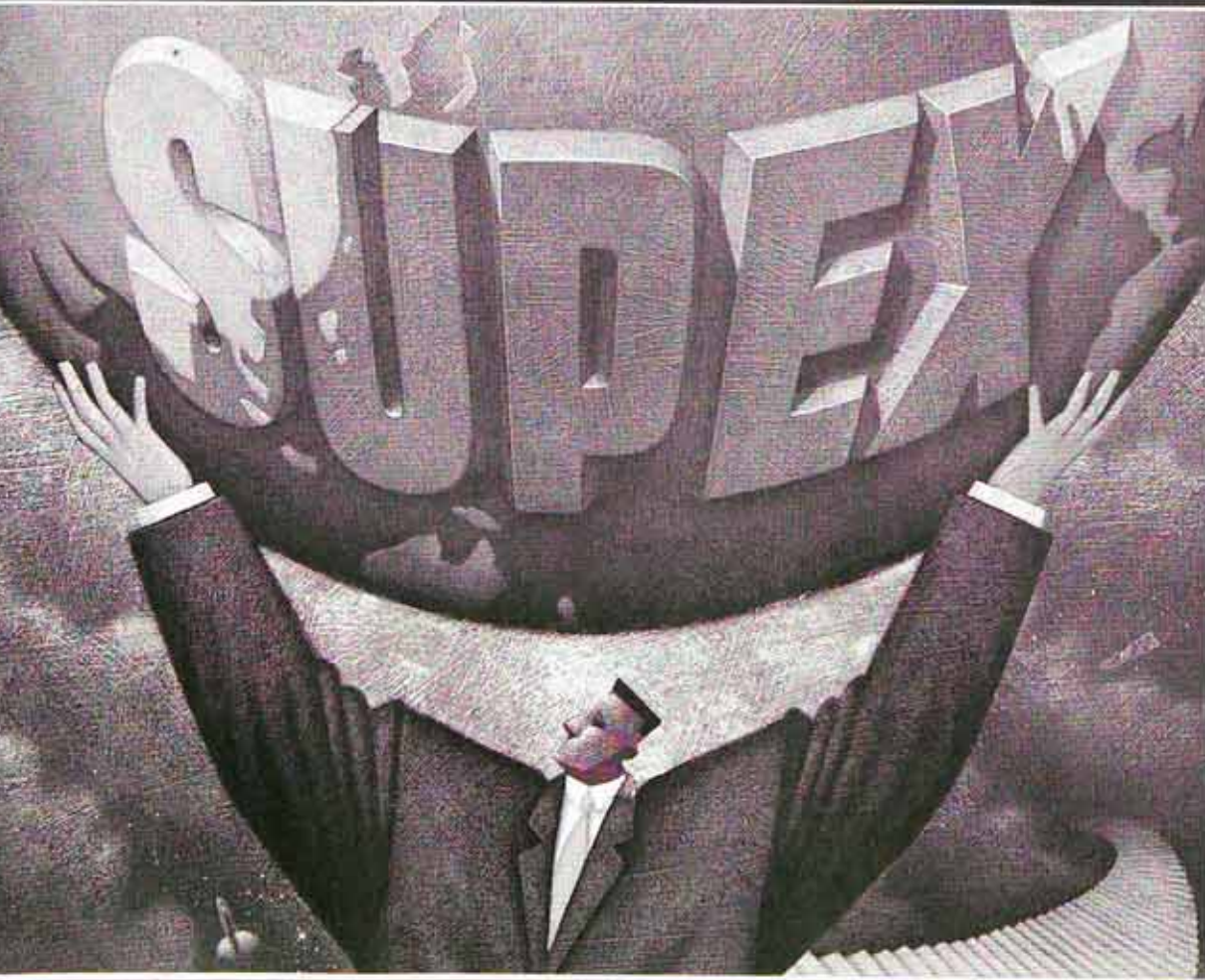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 구좌당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 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본사에 연락없이 마택반가상보금 동참금 을 은행에 입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동참 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은행 입금후 반 드시 본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데생용 미트반가상을 보냅니다



##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